

## 들어가는말

저는 시험 준비 기간 초반에 다른 개인적인 일과 병행하며 준비하였어서 수험 기간이 길어진 경우로 과연 제가 수험생분들에게 줄 수 있는 팁 같은 것이 있을지 고민되어 합격수기를 쓰기 망설여졌습니다. 다만, 앞으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게 될 수험생분들에게 저와 같이 너무 긴 시간을 수험생활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장수생이 알려주는 단기 합격 팁으로서 “이렇게만 하면 최소 2년은 더 일찍 합격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가볍게 읽고 넘기시는 정도로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합격 수기는 전업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서술하겠습니다.

## 제59회 1차 (평균 84.16)

민법개론 92.5

자연과학개론 75

산업재산권법 85

## 제59회 2차 (평균 51.22)

특허법 44

상표법 43.66

민사소송법 66

디자인보호법 53

## 제60회 2차 (평균 57.66)

55

54.33

63.66

57.66

## 1차 과목 공부방법

저는 2차를 떨어지고 다시 1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차 준비를 3개월 동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1차는 길게 하면 1년을 잡고도 할 수 있고 짧으면 2-3개월 안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의 경우는 본인이 인강 듣는 속도가 남들보다 빨라서 하루에 7-8개 정도 듣는 데 부담이 없다면 중급강의나 객관식 강의를 빠르게 들으면서 단기간에 진도를 빨리 빼는 방법으로 회독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인강을 듣는 속도가 남들보다 현저히 느린편이라 김동진 민법 객관식 교재를 바로 풀면서 사례적용에서 이론을 익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처럼 거꾸로 하게 되면 기출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먼저 익히고 어느 부분이 출제포인트가 되는지를 먼저 익힐 수 있어 이론을 익혀나가는 데 강약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1차 공부에 있어 민법을 아예 처음 배우는 분이시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삼시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산업재산권법의 경우는 조문, 기출, 판례 3가지만으로 공부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객관식 문제 출제의 경우 조문의 비중이 높으므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모두 어느 부분이 출제포인트가 되는지 기출문제를 회독하시면서 익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조문과 연계하여 쟁점이 되는 판례도 함께 숙지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과목별로 객관식 문제집을 다 풀어보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 조문, 기출, 판례 3가지만

회독하더라도 고득점을 받는 데는 충분하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과목의 경우 1차 합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과목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라면 객관식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서 생물, 화학, 지구과학, 물리 4가지를 최대한 골고루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연과학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안정적인 점수로 1차 합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서 공부 비중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꾸준히 자연과학 4과목을 골고루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 2차 과목 공부방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모든 과목이 쓰기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통적인 내용으로 이하 서술하겠습니다.

### 꼼수 부리지 말고 정석으로 공부하기

-해도 되는 꼼수

예를 들어, 동차생분들의 경우 또는 선택과목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실전GS 하나 정도는 논점을 강사분께 여쭙보고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암기해가서 쓰고 수업을 수강하는 정도의 꼼수는 각자 사정에 따라 융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꼼수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6월, 7월 정도가 아닌 한 S급, A급 논점 위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올 것 같은 것만 공부하는 것은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서를 볼 때 강약 조절을 하면서 보는 것은 추천하지만 선택적으로만 공부하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암기에만 치중하는 것을 금물입니다.

-암기에 너무 치중하여 공부하지 말란 말의 뜻

답안지에 뭘 쓸지를 고민하면서 키워드 위주로 판례요지, 제도의 취지, 요건, 효과 등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것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논문까지 찾아가며 자기가 어떻게 쓸 건지 정리해서 그걸 암기한다던가, 민사소송법의 경우 교수별 입장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세세히 나눠서 다 암기하고 있다던가, 법조문만 봐도 쓸 수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다 암기하려 한다든가 등 수험 적합적이지 않은 행동은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본에 충실하고 겸손하게 공부하기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은 언제나 기본서 및 판례집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기본서나 판례집을 회독할 때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 암기나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 등

강약 조절을 하며 4주 3주 2주 단위로 점점 줄여가면서 회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하루에 최소 한 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할애하여 기본서 및 판례집을 평일 내내 꾸준히 학습하여 전체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S 수업 성적이 너무 걱정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GS 수업 전날인 금요일 또는 주말에 GS 수업 수강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 정도는 최신판례 위주로 훑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을 없애는 것도 단기 합격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GS 수업에서 고득점을 위한 공부만을 하는 것을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차 기준으로 4월에서 6월 사이, 기득 기준으로는 3월이 되기 전에 최소 한 달 정도는 기출문제 풀이에 치중하여 이론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하고 목차는 어떻게 쓰는 게 고득점에 유리한지를 숙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지 못한 채 기본서와 판례집 회독에만 치중하여 공부를 하는 것은 수험 적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공부하라’는 말은 자신의 공부 했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기본서, 판례집, 쓰기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동차나 기득과 스터디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항상 상대방에게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하게 스터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쓰기 스터디를 구할 때 성실한 스터디원을 구하는 것이 1순위 기준이었고, 정말 성실한 기득 친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답안지를 바꿔 채점하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잘 다루지 못한 문제를 그 친구는 너무나도 쉽게 풀고 쓰기를 한 것을 보고 부끄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고 꾸준히 쓰기 스터디를 하며 쓰기 실력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잠깐의 창피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타인은 그렇게 본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단기 합격을 원하는 수험생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자신보다 더 적은 시간 공부를 한 동료와 스터디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하게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사선택 팁

저는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훌륭한 강사는 복잡해 보이는 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줄 아는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수강하면서 대다수가 듣는 강사가 나에게도 맞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교재는 좋은데 강의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샘플이나 후기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 단기 합격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본서 선택 및 회독 팁

암기집이 아닌 이상, 가장 두꺼운 교재 기준 70-80프로는 수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사례집을 풀거나 GS 수업을 들으면서 보충해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재는 없으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두꺼운 교재를 회독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적당한 분량의 교재를 일단 다회독하여 큰 흐름, 큰 줄기부터 익히고 세부적인 부분을 차근차근 채워가는 게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택하면 됩니다.

저는 5시간/3시간/2시간 반/30분 이런 비율로 민사소송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공

부 시간을 분배하였습니다. 기본서 회독은 각 과목별 정해진 시간 안에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사례집을 회독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싶은 날에는 5시간 중에 4시간은 사례집을 공부하고 1시간은 기본서를 조금이라도 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서 회독의 방법으로는 모든 과목 공통으로 목차를 항상 보면서 1) 대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2) 그 안에 소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3) 각 쟁점별 판례 태도는 어떤지 즉, 큰 줄기부터 그리고 작은 줄기, 작은 앞사귀 순으로 머릿속에 맵을 그려간다는 느낌으로 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 쓰기전략

먼저, 저는 전체적인 쓰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민사소송법 과목을 강의하시는 최영덕 교수님의 도움을 크게 받았으며 올해 민사소송법 고득점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1) 문제의 소재, 2) 대목차 3) 소목차 4) 결론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경우는 문제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관해 자신이 이런 쟁점을 파악했으며 이하 이 부분을 서술할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최종결론과 대응되는 부분이며 2줄 내지 3줄정도로 간단히 서술하면 됩니다.

2) 대목차 부분은 문제에서 묻는 바를 위주로 단순하게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묻는 게 3가지라면 대목차도 3개를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채점자 편의를 위한 방법이며 득점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서술하였습니다.

3) 소목차 부분은 쟁점별 자신이 암기한 목차와 내용을 쓰고 사안포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최종결론 목차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득점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외 과목별 쓰기 전략은 김진주 변리사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허법의 경우는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되 쟁점별 선결적인 목차를 조금 더 추가하여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상표법의 경우는 디자인보호법과 비슷하게 논점을 잡고 배점에 따라 사안 포섭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적는 방식으로 쓰기를 연습했습니다.

###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것은 강사가 작성해 놓은 답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례집을 통해 학습하는 경우 1) 문제의 출제의도 파악 2) 기본이 된 판례나 쟁점이 무엇이고 문제에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숙지 3) 기출 표현으로는 내가 암기한 쟁점을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 지 숙지, 4) 내가 자주 누락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답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례집을 푸신다면 회독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 강의 신청 동기

흔히 수험생의 실력은 계단식 성장곡선을 그리며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공부 및 쓰기를 함에 있어서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김진주 변리사님 디자인보호법 수업을 들으면서 합격에 가까운 단계로 꺾충 뛰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23년 기준 신규 강사이셨고 선택과목이다 보니 다수가 듣는 강의를 들을까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강의 소개 영상을 봤는데 동차 합격생이면서도 2차 성적도 굉장히 좋으셔서 ‘과연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나와 어떤 부분이 다를까?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분명히 배워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선택과목 수업을 수강하지 않으면 공부를 소홀히 할까 걱정되어 수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수업교재 및 내용

저는 김웅 변리사님 책을 계속 봐왔던지라 암기 위주로만 회독을 하다 보니 가끔 내용상 연결고리가 되는 내용을 안 보게 되어 머릿속에서 잊힌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진주 변리사님은 수업교재를 자체 제작을 하셨는데 제가 잊고 있던 연결고리 내용들을 수록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암기할 때 이해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을지라도 암기를 수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효율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진주 변리사님 자체 제작 교재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큰 테마 안에 어떤 쟁점들이 있고 이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은 어떤 것 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 다. 예를 들어, 디자인 성립성 테마 안에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쟁점들이 있고, 그 중 물품성과 관련된 판례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며 시각성과 관련된 판례는 이러한 것 들이 있음을 같이 수록하여 기본서와 판례를 동시에 익힐 수 있어 효율적이었습니다.

### 수강후기

그 당시에는 신규 강사 이시다 보니 수강생 수가 적은 편이셔서 답안지 첨삭을 정말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빨간펜으로 대충 밑줄 긋고 목차별 점수만 매기고 끝나는 채점이 아니라 문단별로 코멘트를 포스트잇을 붙여서 수기로 첨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첨삭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디자인보호법 과목 특성상 문제가 되는 쟁점을 다룰 때 기본적인 의의, 취지 등을 짚어주고 답안지를 써 내려가야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항상 놓치고 있었으며 잘 쓴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는 고득점이 안 나오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은 1점들이 모여야 50점을 넘지 못하여 합격을 못 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법 과목이다 보니 어느 정도 암기가 수반이 되면 16페이지 답안지를 채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서 누구나 다 16페이지 이상을 채워서 답안지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는 “디자인보호법은 암기만 하면 되니깐 쉽다. 50점만 넘으면 되니깐 적당히 공부해도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택과목으로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을 봐서 그런지 50점 초반

의 점수가 나오는 게 사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암기만 해서 바르기만 하면 고득점을 하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목과 동일하게 배점과 출제역도, 시간 조절을 통해 답안지 작성의 강약 조절이 수반되어야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김진주 변리사님은 직접 첨삭을 통해 강약 조절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고, 이러한 강의 수강과 첨삭은 저의 수험생으로서의 모든 불안을 해소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뿐만 아니라 특허법 및 상표법에 이르기까지 과목별 쓰기 꿀팁도 말씀해주셔서 전 과목 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첨삭지도 이후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각각 과목별 특성에 따라 서술방식, 강약 조절, 사안 포섭 정도 등을 제가 원래 하던 스타일에서 조금씩 수정하였고 그 덕분에 전 과목 평균이 작년보다 6.44점 상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공부 방법

저는 남들보다 책을 회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시간관리가 저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순 공부시간 11시간 정도 확보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디자인보호법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할 땐 잠자기 전 머리를 말리면서 5분, 10분이라도 보도록 노력했고, 식사하기 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잠깐씩 보는 식으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서 암기 회독(70%), 판례집(20%), 기출(10%) 3가지를 기준으로 양을 너무 늘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요 최신판례나 주요 쟁점의 경우 큰 배점으로 나올 시 어떻게 늘려 쓰고, 작은 배점으로 나올 시 어떻게 줄여 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회독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암기 회독에 있어 수험기간 내내 김웅 변리사님 '디자인보호법 키워드 노트'를 주교재로 공부하였습니다. 원래 보던 책을 계속 보는 게 위험부담이 적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였으며, 판례 자료와 다른 자료 부분은 김진주 변리사님 책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암기 회독 방법으로는, 1) 큰 줄기로는 디자인의 정의, 출원, 등록요건, 절차 및 조치, 등록 후 법률관계, 헤이그 국제출원 테마가 있고 2) 작은 줄기로는 예를 들어, 디자인의 정의 안에 일반 디자인과 특유 디자인, 등록요건 안에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등록요건의 경우, 두문자를 활용하여 암기하였고 문제에서 등록가능성을 묻는 경우 모든 등록요건 안에서 논점을 체크하면서 논점 누락을 방지하였습니다. 3) 나무줄기의 잎사귀로는 각 줄기 안에 빈출되는 관련 쟁점들을 회독 시 숙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상술한 1) 2) 3) 순으로 점점 구체화하면서 회독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판례와 기출 공부를 병행하면서 각각의 쟁점들과 관련된 판례가 무엇이고, 답안지를 쓸 때 이 판례를 어느 테마에 위치시켜야 할지, 기출 빈도가 높은 부분은 무엇이고 기출에서 어떻게 묻는지를 공부하면서 같이 숙지를 하는 식으로 회독을 합니다. 또한, 특유 디자인의 경우 빈출되는 논점으로서 등록요건과 등록 후 법률관계로 침해, 이용 관계 등 그리고 여러 조치들을 연관 지어서 항상 숙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론을 암기하는 것과 더불어 사례적용과 관련해서는 포스트잇으로 자주 실수하는 것들을 적어 식사 후 집중이 잘 안되는 시간이라던가 시간이 남을 때 포스트잇을 꺼내어 조금씩 공부하였습니다. 포스트잇 기재 내용은 예를 들어, 1) 디자인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

경우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을 모두 고려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특유 디자인의 경우 특히 누락 주의, 2) 기출은 대부분 등록요건(등록 가능성)에 관한 설문 하나와 등록 후 법률관계(침해 판단)에 관한 설문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답안지 작성시 잘 나누어 작성할 것, 3) 묻는 게 2개면 답도 2개를 쓸 것 누락 주의, 4) 주체가 누구인지, 날짜 확인하여 선/후 파악 주의, 4) 출원인지 등록인지 구분 주의 5) 디자인 유사 판단시 물품의 동일/유사 항상 먼저 기재할 것 등등을 적어놓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숙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수험생활 일반

### 건강관리/멘탈관리

슬럼프는 누구나 한 번쯤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슬럼프가 너무 길어지지만 않게 스스로의 불안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안하거나 힘들 때 햇빛을 받으면서 하루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씩 산책을 자주 했었는데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전환도 되고 수험생활을 하는데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해는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 시험 당일 멍한 상태로 시험을 봐서인지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실수를 시험장에서 하고 와서 특정 과목 점수가 급격하게 낮아진 해도 있었고, 어떤 해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수험 적합적이지 않은 공부를 하여 합격에는 이르지 못한 해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수험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육체적인 건강관리와 정신적인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찾아서 꾸준히만 한다면 누구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부장소/스터디

저는 집 근처 스터디센터에서 공부를 하였고 스터디센터에서 스터디원을 구하여 2명에서 쓰기 스터디를 하고 서로 바꿔서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바꿔 채점하는 스터디를 하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적나라하게 보여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채점자의 시각에서 답안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서로 도와가며 쓰기 실력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수험생분들께 하고 싶은 말

수험기간 내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가까운 가족, 친구, 연인 그 누구도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옆에 있을 수 없고 항상 제 마음을 알아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언제나 옆에서 스스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비단 수험기간뿐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는 것은 자기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중심을 가지는 것과 고집을 부리는 것을 엄연히

다르므로 수험기간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집을 심하게 부리게 되면 단기 합격에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험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험기간이 길어진 경우라 과정에 있어서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수험생으로서 가장 속상했던 게 어떤 사유가 있었든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합격, 불합격 2가지의 결과로만 저의 노력한 순간들에 대하여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스스로 정한 진로였기에 긍정적이게 생각하러 노력하였으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존재하였고, 제가 힘들 때 이끌어주는 강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합격수기를 읽어주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수험적합적이고 기본에 충실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서 꼭 단기 합격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맺음말

저는 수험생활을 함에 있어서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도움을 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제야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 공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과 실력을 갖출 수 있게 수험기간 내내 도움을 주신 최영덕 교수님,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과목인 상표법을 끝까지 놓지 않고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동영이, 특점에 유리한 쓰기 팁을 전수해 주시고 이렇게 합격수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진주 변리사님, 같은 스터디센터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서로 응원하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효정이, 오랜만에 연락해도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고 축하해 준 준권오빠, 지혜언니, 현우오빠, 정호오빠, 동한오빠, 규이언니, 지혜,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언니, 오빠, 동생들 모두 고맙습니다.

수험 기간 내내 언제나 나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해준 우리 텔레토비, 힘들 때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 준 민선이, 성현이...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응원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묵묵히 옆에서 응원해 준 엄마, 아빠, 언니, 동생 모두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